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현장 중심 안전 관리 강화

✎ 권택근기자 | ㉸ 승인 2026.05.21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는 지난 5월 19일(화),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KSG안전지킴이 임명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지난 19일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및 KSG안전지킴이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안전보건협의체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열려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사장과 현장대리인 등 참석자들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하며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KSG안전지킴이' 임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임명된 안전지킴이는 향후 현장 내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약 1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칠곡군 북삼읍 오펜리 및 약목면 덕산리 등(3개 리)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을 구축해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철 칠곡지사장은 "안전은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무재해 사업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SG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전 직원과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택근기자